Research Center

2016년 6월 14일

투자전략 Daily

- **파생/ETF 전략**
  Global ETF: 금리 하락을 보는 관점
- **중화권 증시 동향**
  대내외 이벤트 결과 앞두고 중국증시 급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블루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광글라스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 분석**
  헬스케어, 음식료 · 담배, NAVER, 삼성엔지니어링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글로벌주식 | 이수정 ☎ 3276-625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크 레 딧 | 김기명 ☎ 3276-6206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7(화)	6/8(수)	6/9(목)	6/10(금)	6/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1.63	2,027.08	2,024.17	2,017.63	1,979.06
	등락폭		25.79	15.45	−2.91	−6.54	−38.57
	등락종목	상승(상한)	506(3)	411(0)	300(0)	448(0)	156(0)
		하락(하한)	307(0)	395(0)	525(0)	364(0)	675(0)
	ADR		99.60	95.46	91.80	92.08	87.54
	이격도	10 일	101.90	102.22	101.75	101.11	99.13
		20 일	102.14	102.81	102.55	102.11	100.13
	투자심리		6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81	498	600	404	439
	거래대금	(십억 원)	5,541	5,846	7,955	4,777	4,541
코스닥	코스닥지수		704.77	703.99	705.08	706.81	695.61
	등락폭		3.34	−0.78	1.09	1.73	−11.2
	등락종목	상승(상한)	581(0)	436(4)	414(2)	638(1)	252(2)
		하락(하한)	485(0)	625(0)	641(0)	431(0)	841(0)
	ADR		103.73	103.57	103.68	103.87	102.18
	이격도	10 일	101.34	100.99	100.92	100.90	99.24
		20 일	101.37	101.23	101.38	101.62	100.07
	투자심리		80	80	80	90	80
	거래량	(백만 주)	774	826	1163	990	813
	거래대금	(십억 원)	3,408	3,978	4,718	3,796	3,44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88.5	1,068.8	825.4	303.2	47.7	189.7	51.5	6.4	226.9	71.5
	매도	2,414.8	1,216.8	899.2	196.8	76.2	267.2	99.6	14.6	244.8	23.4
	순매수	**173.7**	**−148.0**	**−73.8**	**106.3**	**−28.6**	**−77.5**	**−48.1**	**−8.2**	**−17.8**	**48.1**
	6 월 누계	**−1,183.2**	**1,305.6**	**−114.1**	**950.6**	**−176.2**	**−585.1**	**−54.9**	**−129.5**	**−119.0**	**−8.3**
	16 년 누계	−3,389.0	4,159.5	−1,533.9	−149.7	2,162.4	−2,093.2	−900.3	−668.9	116.0	763.3
코스닥	매수	3,215.2	147.3	80.4	21.0	5.9	24.4	6.2	1.7	21.2	22.0
	매도	3,135.3	195.0	105.4	31.2	6.7	39.3	10.3	1.3	16.7	29.1
	순매수	**79.8**	**−47.7**	**−25.0**	**−10.2**	**−0.8**	**−14.9**	**−4.1**	**0.4**	**4.5**	**−7.1**
	6 월 누계	**308.5**	**−19.4**	**−148.9**	**11.0**	**−28.2**	**−83.4**	**−49.6**	**1.1**	**0.1**	**−140.2**
	16 년 누계	2,816.4	195.6	−2,049.6	−231.9	−125.0	−650.4	−349.6	−104.2	−588.7	−962.4

강송철(sckang@truefriend.com) ☎ 02-3276-6181

Global ETF: 금리 하락을 보는 관점

2015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38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8.3%P

▶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 글로벌 경기 우려, 주가 하락 전조로 보는 건 섣부른 판단
▶ 금리 인상에 대한 낮은 기대는 반대로 대응할 필요. 주식을 사는 기회
▶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주춤. 배당주는 좋은 대안

■ 글로벌 채권금리 저점 경신

글로벌 채권금리 신저점 경신

지난주 해외증시 급락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Risk on)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식 하락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건 글로벌 채권금리의 급락이다. 주말 거래에서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는 1.64%로, 영국과 독일,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각각 1.23%, 0.02%, -0.17%로 떨어졌다. 미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역사적 최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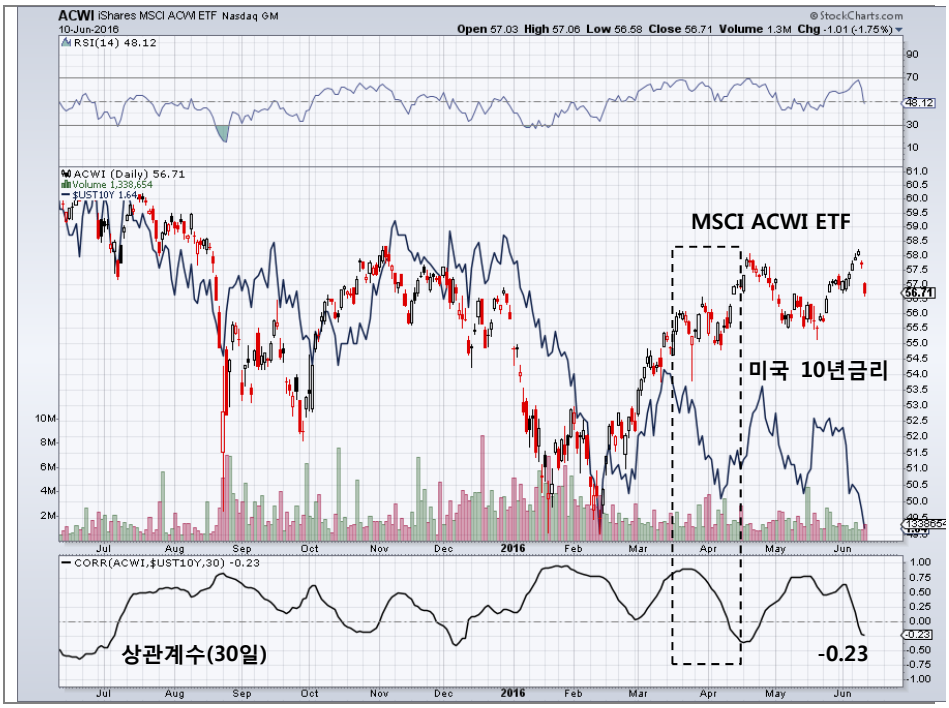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10년 국채금리 (weekly, 최근 10년)

자료: stockcharts.com

하지만 금리 하락을 막연한 글로벌 성장 우려나 주가 하락의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 다음 페이지 <그림 2>는 최근 1년 동안 미국채 10년 금리와 전세계 주식(MSCI ACWI)을 함께 그린 것이다. 금리와 글로벌 증시는 얼핏 보면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특히 1개월 가량의 단기 구간으로 봤을 때 그닥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그리고 6월 들어 주말 지수 급락 전까지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고, 금리와 주가간 상관계수는 (-)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 미국 10년 금리, MSCI ACWI(전세계 주식) ETF (Daily, 최근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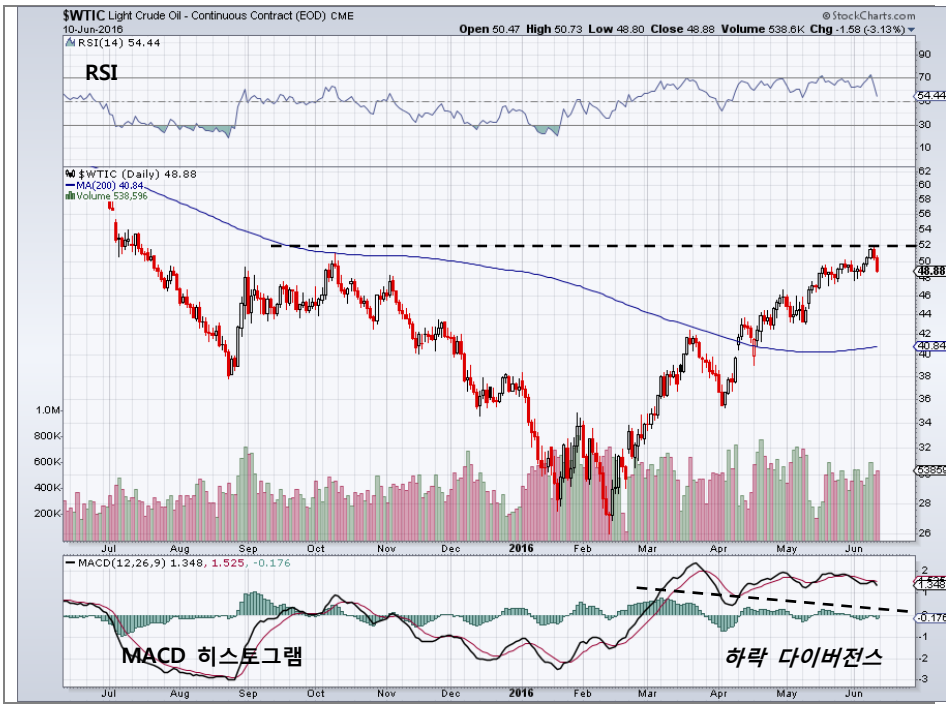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2>를 다시 보면 애매한 금리와 주가간 상관관계보다 더 눈에 띄는 점이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금리 저점이 글로벌 증시 저점과 거의 일치했었다는 사실이다. 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로 본다면 안전자산 선호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 오히려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이었단 얘기다. 지금이 금리 저점이라면, 직관적으로 오히려 주식을 사야 하는 때다.

위험자산 단기 조정 가능
미국증시, 국제유가

미국 외에 유럽과 일본은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경신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브렉시트 우려가 안전자산, 채권 수요 증가의 원인이라면 투표가 예정된 6/23일까지 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 주말 급락으로 미국 증시가 이전 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기술적 하락 부담이 생긴 점, 2월 이후 빠르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에 부정적이다.

[그림 3] WTI 유가 (Daily, 최근 1년) – 상승 지속, 그러나 단기 차익실현 압력



자료: stockcharts.com

■ 금리 하락을 보는 관점

하지만 지금은 채권보다 주식을 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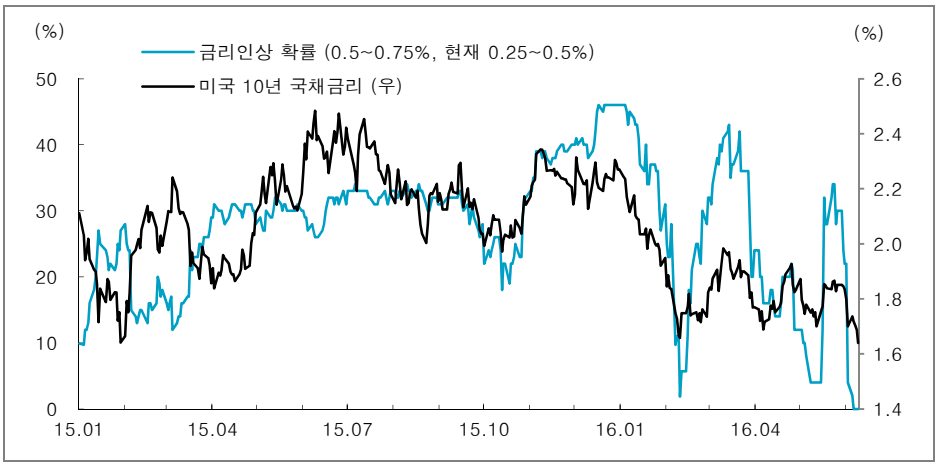
그러나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금리가 급락한 지금은 금리하락 베팅(채권)보다 금리상승 베팅(주식)이 더 맞다고 본다. 지금이 금리 저점은 아니지만, 저점에 근접한 상황이라면 주가 조정은 사는 기회(buying opportunity)다.

아래 <그림 4>는 선물에 내재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과 실제 금리(10년)을 함께 그린 것이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민감해지면서 선물 내재확률은 시장에서 가장 흔히 인용되는 지표가 됐다. 6월 FOMC를 앞두고 30% 이상까지 상승했던 선물시장의 금리인상 기대 확률은 월초 고용 쇼크 이후 '0%'로 떨어졌다.

그림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선물 내재확률이 실제 금리인상 예측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그보단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판단하는 지표로 봐야 한다. 0%까지 떨어진 선물시장 확률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이미 바닥이라는 얘기고, 이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뀔 경우 가격 반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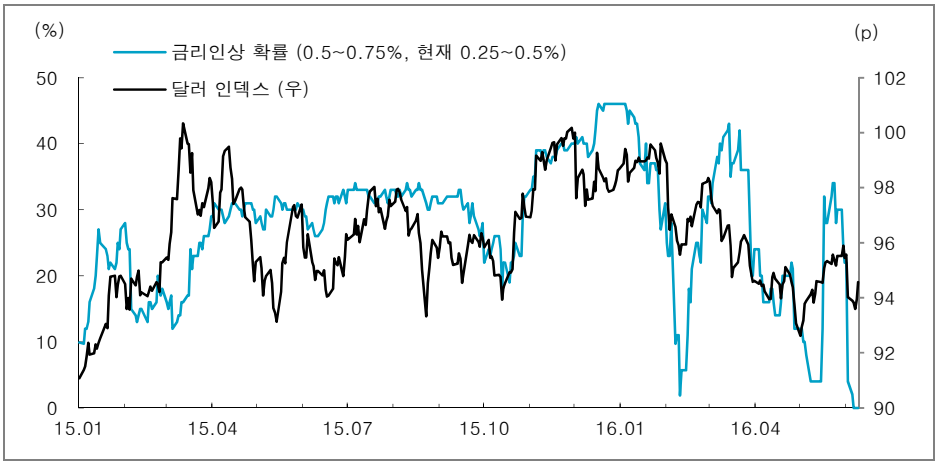
시장에 모든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면 그쪽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다. 포지션은 반대로 잡아야 한다. 그림을 보면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선물 내재확률)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금리의 저점 부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을 보면 달러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 시점은 향후 미국 금리와 달러가치 상승을 대비한 포지션을 쌓을 때로 판단한다.

[그림 4] 선물 내재 금리인상 확률과 미국 10년 금리: 기대 바닥일 때가 금리 바닥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선물 내재 확률은 6월 1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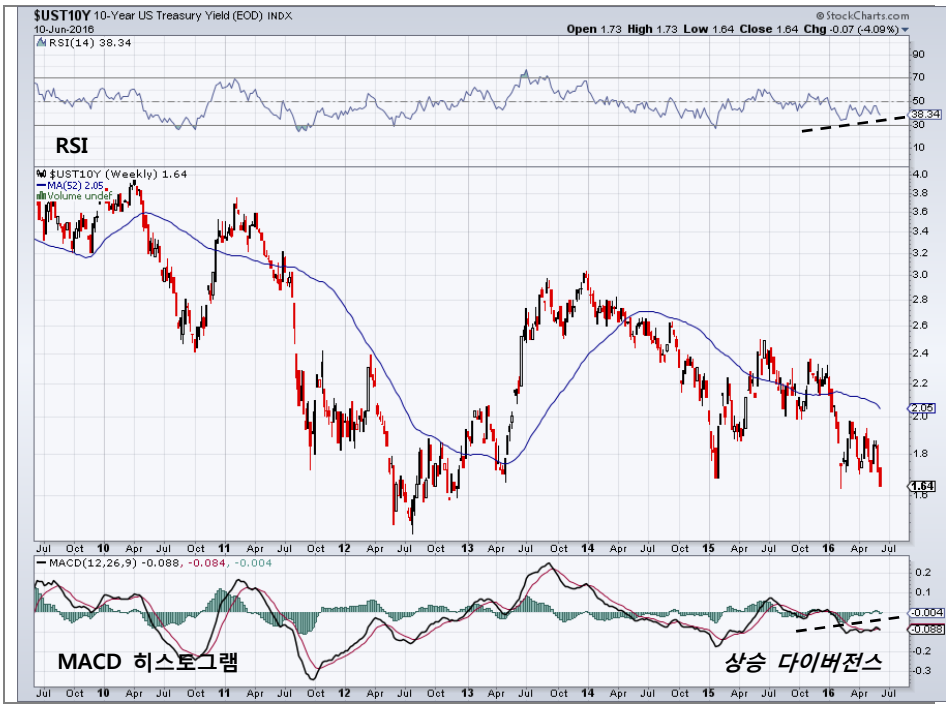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10년 국채금리 (weekly, 최근 10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선물 내재 확률은 6월 10일 기준

<그림 6~10>은 주요국의 주간 및 일간 채권금리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 10년 금리는 주말 급락으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주간(weekly) 기준으로 보면 RSI와 MACD 히스토그램 상승 다이버전스(divergence) 조짐, 즉 상승 반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급락한 영국과 독일 10년 금리 역시 RSI가 30선을 하회하면서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미국 10년 국채금리 (weekly, 최근 10년)



자료: stockcha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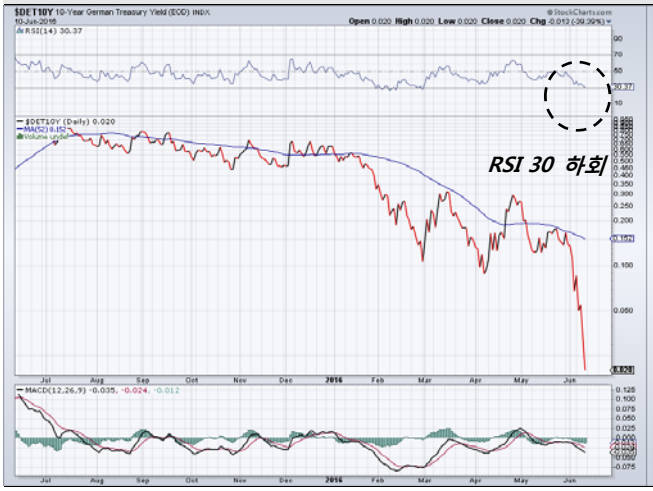
[그림 7] 영국 10년 국채금리 (Daily, 최근 1년)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8] 영국 10년 국채금리 (weekly, 최근 10년)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9] 독일 10년 국채금리 (Daily, 최근 1년)



자료: stockcharts.com

[그림 10] 독일 10년 국채금리 (weekly, 최근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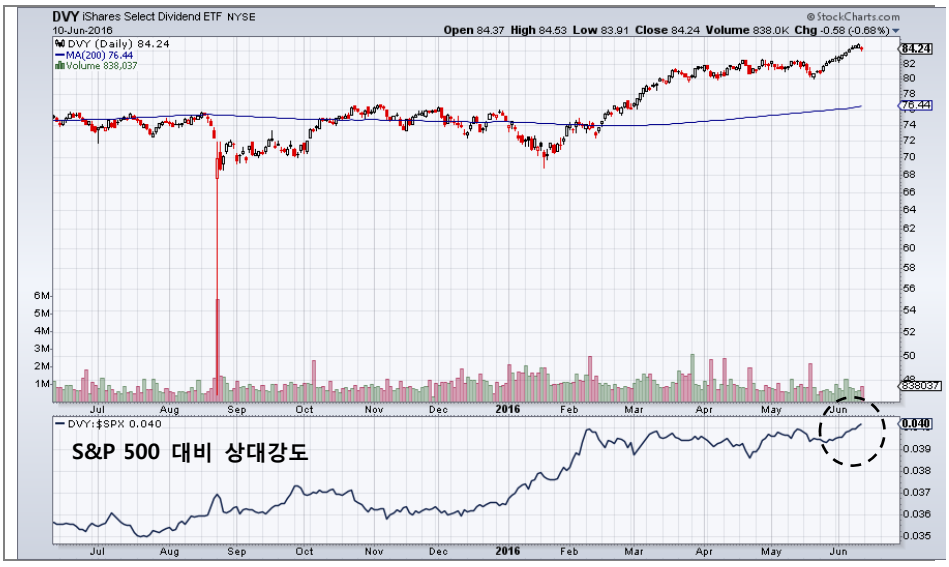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 금리 하락 및 시장 불안, 배당주는 좋은 대안

금리 하락으로 배당주 수혜

금리 하락, 브렉시트 우려로 단기 시장 상황이 불안할 것으로 본다면 배당주가 좋은 대안이다. 금리 하락 환경에서 배당주의 일드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시장 하락 상황에서 방어주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한 두차례 올린다고 해도 절대금리 측면에서 저금리 상황은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5/24일 자료, 일드를 찾아라: High yield + low risk 배당주 참고). 지난주 미국 시장 급락 와중에도 배당주는 시장 대비 상대강도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1] 미국 배당 ETF (DVY, DowJones US Select Dividend, Daily, 최근 1년)



자료: stockcharts.com

국내는 Fnguide 고배당지수를 추적하는 Arirang 고배당 ETF가 관심종목이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배당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High Yield + low risk 배당종목을 주목한다(종목선정은 6/7일 한투 데일리 참고).

[그림 12] Arirang 고배당 ETF (주간 주가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1〉 High yield + Low risk 배당종목

코드	이름	시가총액 (억원)	15 년배당액 (억원)	배당수익률 (%)	주가변동성 (최근 1 년)	16 년순이익 (E, 억원)	15 년순이익 (억원)	순익증가 (yoy)	16 년 PER (E, 배)	KIS 유니버스
A082640	동양생명	11,680	633	5.4%	2.1%	1,885	1,579	19.4%	6.3	O
A000030	우리은행	68,029	3,366	4.9%	1.5%	14,781	10,592	39.6%	4.6	O
A005940	NH 투자증권	26,067	1,122	4.3%	2.3%	2,438	2,151	13.3%	10.7	O
A024110	기업은행	64,454	2,504	3.9%	1.8%	12,756	11,430	11.6%	5.1	O
A029780	삼성카드	45,194	1,731	3.8%	2.0%	3,682	3,337	10.3%	12.3	O
A005490	POSCO	181,654	6,400	3.5%	2.2%	21,992	1,806	1117.4%	8.3	O
A108320	실리콘웍스	5,822	163	2.8%	2.4%	549	485	13.3%	10.6	O
A086790	하나금융지주	73,313	1,924	2.6%	2.0%	13,394	9,097	47.2%	5.5	O
A000270	기아차	187,734	4,410	2.3%	1.9%	31,980	26,306	21.6%	5.9	O
A204320	만도	20,053	450	2.2%	2.4%	1,809	1,258	43.8%	11.1	O
A001450	현대해상	28,161	598	2.1%	2.0%	3,072	2,123	44.7%	9.2	O
A093050	LF	6,936	146	2.1%	1.5%	661	509	29.9%	10.5	O

주: 1. 시가총액은 최근 20거래일(1개월) 평균, 6/10일 기준

2. 배당수익률은 15년 배당금액 /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3. 주가변동성은 주가수익률 표준편차. 최근 1년

4. 16년 PER은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 16년 예상 순이익으로 계산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머징마켓팀 ☎ 02-3276-6274

대내외 이벤트 결과 앞두고 중국증시 급락

▶ 중국 증시는 3.2% 급락,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지표 부진에 투자심리 악화
▶ 홍콩H지수는 2.4%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원자재 가격 부진이 주요 악재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3.2% 폭락, 문화/미디어, IT, 소프트웨어, 의료 등 대부분 업종 약세

단오절 휴장이 후 개장한 상해종합지수는 3.2% 급락한 2,833p로 마감했다. 연휴 기간의 대외 악재를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은 1,985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 대비 211억위안 늘었다. 대외적으로 BOJ(15~16일)와 FOMC(17일)의 결과를 앞둔 가운데 브렉시트(23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또한 15일 새벽에 발표 예정인 A주의 MSCI 편입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차익실현 매도물량 역시 출회됐다. 그 외, 1~5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9.6%로 2000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 역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문화/미디어, IT, 소프트웨어, 의료, 포장소재 등 귀금속과 보석/쥬얼리를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했다. 차스닥 지수는 6.0% 폭락한 2,055p로 마감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10.8억위안 순매도하며 19 거래일만에 순유출세로 전환됐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2.4% 하락,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통신, 서비스 등의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2.4% 하락한 8,620p로 마감했다. 직전일 글로벌 증시의 하락에 동조하며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약세를 확대해 나갔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확대와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또한 원유 및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하락한 것, 본토 A주의 MSCI 편입 기대감 감소, 본토지표 부진에 따른 증시 하락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역내외 위안화 환율 갭이 확대된 것 역시 시장에는 부정적이었다.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등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6/13(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2,833.07	-3.21	-3.15	0.03	-19.95
심천종합	1,827.36	-4.76	-4.06	1.28	-20.86
차스닥	2,054.71	-6.03	-6.12	0.05	-24.29
홍콩H	8,619.92	-2.40	-2.16	3.84	-10.78
Shibor 7일물 금리(%, %p)	2.34	-0.04	0.04	0.77	-0.55
Shibor 1개월 금리(%, %p)	2.84	0.07	0.21	0.35	-5.26
중국국채 3년물(%, %p)	2.54	-1.07	-0.92	2.42	-1.22
위안/달러 고시환율	6.5805	0.32	0.32	0.86	1.34
역내 위안/달러	6.5864	-0.36	-0.34	-0.83	-1.41
역외 위안/달러	6.5985	0.09	-0.49	-0.64	-0.45

주: 13일 오후 5시 37분 기준

신은영(eunyoung@truefriend.com) ☎ 02-3276-6261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 미국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 여기에 독일과 일본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고 국제유가 하락까지 더해지며 하락 마감. 2,000P선을 위협하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며 9거래일 만에 1,98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1.5% 이상 급락하며 8거래일 만에 700P선 아래로 밀려남. 오는 15일 발표되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이벤트와 미국의 월 FOMC,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달 말 신공장 준공을 앞두고 공급 부족 해소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연우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자체 개발한 플립칩 발광다이오드(LED)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세미콘라이트가 상한가를 기록. 하반기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네오팜이 급등했으며, 미세먼지 대책 관련 수혜주로 부각된 한솔신텍, 한국테크놀로지가 나란히 강세를 보임. 또한, 세계 최대 카지노 그룹인 셀던 아델슨 샌즈그룹의 부산 북항 카지노 투자 기대감에 토비스가 급등했으며,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발표를 앞두고 관련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코스피가 1,980P선으로 아래로 밀려나며 약세를 보이자 증권주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비롯한 비상장 계열사들의 IPO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이는 등 잇단 악재가 쏟아지며 롯데제과, 롯데하이마트가 신저가를, 그 외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연우(115960) ▶43,350(+5.11%)	**신공장 준공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최근 공장 가동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신공장 준공을 앞두고 공급 부족 해소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중국과 한국 화장품 수요가 견고함에 따라 전방산업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 믹스 다변화 등으로 마진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네오팜(092730) ▶38,950(+8.55%)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급등세** - 지난 2012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하반기부터 관계사인 잇츠스킨 유통망을 통한 매출 확대 기대감에 급등세 - 잇츠스킨은 뉴월드 그룹과 중국 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유통망을 체결했으며, 썬마그룹과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시장에서의 유통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한국테크놀러지(053590) ▶3,885(+9.75%)	**미세먼지 저감기술력이 부각되며 급등세**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동사가 화력발전에서 더 적은 양의 석탄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초강세 - 지난해 말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에 석탄 반입량 기준 3,000톤/일 규모의 석탄건조설비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바 있음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파캔OPC(028040) ▶7,960(+9.19%)	- 최대주주가 부강종합건설주식회사 외 1인에서 마이더스성장1호 조합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보광산업(225530) ▶11,400(+3.64%)	- 대구광역시 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레미콘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3월 레미콘 공장 인수와 추가 증설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석(hunseog@truefriend.com)☎ 02-3276-6232

단기 유망종목: 블루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블루콤 (033560)	16,250 (-0.3)	16,300 (06/07)	- 기존 제품보다 1.5배 이상 판매가가 높은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톤플러스 HBS-1100)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LG전자의 높은 인지도와 음질 및 디자인 등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가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 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6,460 (-2.9)	6,650 (05/31)	- 'Caramel Tree' 컨텐츠를 미국, 중국, 이란,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고, 미국의 세계적 출판 유통기업인 IPG사와 스토리북 배분 계약을 맺는 등 컨텐츠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학령인구 감소세 둔화로 교육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어학원의 과점화에 따른 수혜 예상. 또한 시가배당률 6%를 상회하는 배당매력을 겸비
아비코전자 (036010)	6,480 (+0.2)	6,470 (05/16)	-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시그널인덕터는 고객사의 중저가폰 내 채용 모델 확대 지속,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따른 NFC용 매출 확대 등으로 고객사 내 안정적 점유율 지속 가능 - 노트북, PC용 DDR4 칩 저항기 매출 성장 및 자동차향 텔레매틱스 매출 확대로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 축소 - 16년 1분기 매출액 210억원(+33.7% YoY), 영업이익 23억원(+42.7% YoY)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실적 이어갈 전망
디지털대성 (068930)	3,250 (+2.5)	3,170 (04/21)	-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불구, 오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과 M&A를 통한 성장 추세 전망. 2015년에도 논술 1위 기업 한우리 인수를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오프라인 및 프랜차이즈 학원, 온라인 부문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배당정책 지속
엔에스 (217820)	17,900 (-1.9)	18,250 (04/12)	- 중국정부가 환경개선, 에너지 수요 다변화를 위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완샹, 천진 등 중국 메이져 로컬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실적 성장 기대 - 이차전지 패키징과 디게싱공정(전지 내 생성된 가스를 상온에서 배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의 일괄 수주 가능. 턴키방식의 제조설비 구축으로 기술과 가격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향 추가 수주 기대
아진산업 (013310)	9,180 (+13.3)	8,100 (03/02)	-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 -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정훈석(hunseog@truefriend.com)☎ 02-3276-6232

중장기 유망종목: 삼광글라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광글라스 (005090)	85,300 (-5.4)	90,200 (05/31)	327	21	40	8,163	10.4
			–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홈쇼핑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홈쇼핑 채널 및 온라인몰 계약으로 판매채널 다각화에 성공. 올해는 로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성장으로 실적 호전 전망 – 군장에너지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큰 규모의 GE4(250MW)기가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2분기부터 군장에너지의 실적 회복 기대				
LG생활건강 (051900)	1,056,000 (+0.9)	1,047,000 (05/10)	6,148	862	627	36,896	28.6
			– 여행 성수기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메르스 기저효과 및 일본 후쿠오카 지진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2분기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고가 브랜드인 '후'에 이어 'SU:M'의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 상반기 내 중국에서 'SU:M'의 런칭이 예정되어 있어 브랜드 확대 효과 기대				
SK머티리얼즈 (036490)	111,200 (-10.3)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9.7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한섬 (020000)	41,100 (+1.9)	40,350 (04/22)	710	84	69	3,132	13.1
			–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 –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 –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 상대적 저평가 상태				
유한양행 (000100)	321,000 (+15.9)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8.3
			–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 –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킴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				
더존비즈온 (012510)	22,800 (+11.2)	20,500 (12/30)	166	39	31	1,057	21.6
			–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최재훈(jaehoon.choi@truefriend.com) ☎ 02-3276-5643

헬스케어: 한국 체외진단 고성장 궤도에 올라서다

■ 체외진단 시장 성장성 높아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는 2014년 522억 달러로 2019년까지 연평균 7.3% 증가할 전망이다. 체외진단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 글로벌 고령화로 의료비가 늘어나는데 정확한 진단은 의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2)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 동반진단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3)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 등이 빈번하게 출현해 관련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다.

■ 한국 진단 업체는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초기 국면

한국 진단 업체는 글로벌 업체와 비슷한 품질에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진단 산업의 특징은 장비는 저마진에 판매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을 고마진에 판매하는 것이다. 한국 업체는 진단 시약 기술 내재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춰 해외 경쟁업체 대비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 원가율이 30% 수준으로 낮고 판관비의 대부분이 고정비성 인건비여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이익 증가 폭이 크다.

■ 진단 기술 별 선도 업체에 주목

아이센스는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자가혈당 측정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당뇨 유병률 상승으로 매년 5%씩 커지고 있다. 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는 일본 아크레이 전용 라인의 증설이 예정돼 있고 2017년부터는 중국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씨젠은 기존 분자진단 ODM 계약의 가시적 매출과 신규 ODM 계약 체결 등의 긍정적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진단에 특화된 바디텍메드는 중국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점차 중동, 미국 등으로 다각화 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경주(kjlee@truefriend.com) ☎ 02-3276-6269

음식료·담배: 16/17년 곡물 재고율 하락 → 곡물가격 상승 대비해야

■ 2016/17년 세계 재고율 전망치: 소맥, 옥수수, 대두 모두 하락

미국 농무성(USDA)이 11일(현지 시간 10일)에 6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17년 주요 곡물의 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소맥, 옥수수, 대두 모두 하락했다. 16/17년 재고율은 소맥 36.0%(5월 전망치 36.1%), 옥수수 20.2%(20.5%), 대두 20.2%(20.8%)를 기록했다. 14/15년 재고율은 소맥 34.3%(5월 전망치 34.3%), 옥수수 21.3%(21.5%), 대두 22.7%(23.3%)를 기록했다.

■ 저가 곡물에 대한 소비 점진적 상향

16/17년 소맥: 이번에 전망된 16/17년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100)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전월대비 3.8백만톤 증가했다. 이는 유럽, 러시아와 미국의 생산량 상향 폭이 브라질과 멕시코 생산량 하향 이상으로 컸기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의 기후환경 호조가 영향을 많이 줬다. 세계 소비량은 전월대비 3.4백만톤 증가했다. EU와 인도네시아 사료용 소비 증가가 각각 1.0백만톤, 0.4백만톤 증가하였고 인도 내 식용 소비가 1.2백만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6/17년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이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생산은 멕시코가 우기가 시작되며 개선될 것을 반영해 전월대비 0.7백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소비 전망은 1.2백만톤 증가하였는데, 이란의 사료용을 비롯 미국과 유럽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16/17년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우쿠라이나와 중국의 생산 전망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0.5백만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6/17년 기초재고도 브라질의 2015/16 생산이 고온, 건조 기후 때문에 예상보다 2.0백만톤 급감하며 전월대비 2.0백만톤 감소했다.

■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 농심, KT&G, 매일유업 추천

지난 1개월간 곡물가격은 소맥 +12.3%, 옥수수 +12.6%, 대두 +9.7%, 원당 +22.7%로 예상했던 강보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분간은 곡물가격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듯 하다. NOAA가 관측하는 엘니뇨의 강도는 크게 약해졌지만 가을부터 라니냐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곡물투기세력의 long 포지션도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년간 곡물가격이 하락해 농가의 경작 의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유가가 반등한 것 등을 빌미로 저가 매집 수요가 커진 듯 하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음식료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비가 상승하나, 가격 인상으로 이러한 부담을 전가하면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내년초부터 원화환산 곡물재료비는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음식료품가격 인상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만 가격 인상의 폭이 소업종별로 다를 것이며, 그 폭이 원재료비 부담보다 큰 업체의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다. 라면은 2011년말 이후로 가격 인상이 안된 유일한 소업종으로, 대표업체인 농심이 이러한 환경에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혜가 클 것으로 본다. KT&G는 곡물가격 상승과 무관한 업체로 2분기에 수출의 높은 기저는 부담이나 내수가 예상외로 호전되고 있어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외 분유수출이 회복되고 원유관련 손실이 줄어들어 꾸준한 실적 개선을 이룰 매일유업을 이번달 Top picks로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김성은(askim@truefriend.com) ☎ 02-3276-6158

NAVER(035420)

매수(유지)
목표가: 850,000원(유지)
종가(6/10): 720,000원

시원섭섭한 LINE의 IPO

■ LINE, 7월 일본과 미국 증시에 동시 상장

Naver는 6월 10일 자회사인 LINE의 일본과 미국의 동시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LINE은 신주발행 방식으로 총 주식수의 20%인 3,500만주(일본 투자자 대상 1,300만주, 일본 외 해외투자자 2,2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2,800엔(30,244원)으로 공모 예상액은 약1조 600억원 규모이다. 이에 근거한 LINE의 시가 총액은 6.35조원 수준이다. 최종 발행가액과 발행 주식수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될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주는 미국(DR: Depository Receipts, 뉴욕증권거래소)과 일본(원주, 도쿄증권거래소)에 각각 7월 14일과 7월 15일에 상장 될 예정이다. 상장 이후 NAVER의 LINE 지분율은 스톡 옵션 행사를 감안 시 기존 100%에서 74.3%로 줄어들게 된다(스톡옵션 제외 시 지분율은 83.3%).

■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장 시 LINE의 시가 총액

시장 기대 대비 낮은 LINE의 시총과 외국인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판단한다. 2016년 1분기 기준 포털 매출액을 제외한 일본 매출 비중은 68.7%에 달한다. 즉, 상장 시 LINE 시가 총액인 6.2조원은 9,100만명의 MAU를 보유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의 향후 성장 가치 보다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일본의 가치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IPO 자금을 통한 공격적인 사업 영역 확대로 동남아 지역의 monetization이 본격화 될 시 기업 가치의 가파른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MVNO 사업을 통한 MAU당 매출액이 높은 일본 내 신규 이용자 유입은 LINE 가치 저평가의 원인인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외국인 수급 이탈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불안정성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Naver의 높은 유동주식비율(77.2%)을 감안할 때 IPO lock-up으로 상당 부분의 주식이 거래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LINE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국내 포털 가치 확대가 IPO 관련 우려에 따른 단기 주가 하락 최소화할 것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00원을 유지한다. 지분율 희석과 기대치를 하회하는 시총을 감안시 Naver 주가에 반영되는 LINE의 가치 하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LINE의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현 시점보다는 상장 후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고 주가가 안정된 이후 목표주가를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 포털들과는 달리 인터넷 사용에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국내 Naver 가치의 지속적인 확대가 IPO 관련 우려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최소할 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가 하락 시, 추가 매수를 추천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758	758	454	15,277	(69.6)	902	46.6	23.9	8.7	27.8	0.1
2015A	3,251	762	519	17,619	15.3	918	37.3	21.1	6.8	26.5	0.2
2016F	4,016	1,068	692	23,761	34.9	1,237	30.3	16.7	6.1	28.0	0.2
2017F	4,738	1,469	988	33,914	42.7	1,650	21.2	12.0	4.9	29.8	0.2
2018F	5,449	1,769	1,271	43,619	28.6	1,961	16.5	9.4	3.9	28.5	0.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경자(kyungja.lee@truefriend.com) ☎ 02-3276-6155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중립(유지)
종가(6/10): 10,700원

몇 가지 작지만 근본적 변화들

■ 변화 1) 각종 중재와 소송, buyer와 seller간 균형적 관계 정립의 단초

최근 삼성엔지니어링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손실공사의 적극 중재에 나서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1) '마덴' 롤링밀: 작년에 발주처 미국 알코아를 상대로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 2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알코아 기술진의 감리 소홀과 부당한 보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 소하르 정유: 오만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2013년 낙찰 받았으나 공기협상이 결렬돼 몰수당한 이행보증금 250억원의 환급을 위한 것이다. 3) 미 다우케미칼의 염소플랜트: 2013년 ICRD(미 중재위원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올해 결론이 나며 환급액을 떠나 극히 불리한 '을'의 위치에 있던 한국 EPC들이 법무인력을 보강하며 발주처와 균형적 관계 정립에 나섰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작년 4분기부터 타사들의 claim 타결도 늘었다. 그간 어닝쇼크는 저가수주 영향도 있지만 미숙한 계약/법률대응 영향도 컸다. 불합리한 계약관행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는 단기손익 영향은 미미해도 장기적으로 한국 EPC에 중요한 변화다.

■ 변화 2) 삼성전자의 CAPEX Cycle 수혜

연초 관계사 수주목표는 1.8조원이었으나 3조원이 가능할 것이다. 상향요인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애플이 내년 출시될 아이폰 모델에 OLED 패널 채택)다. 현재 관계사 수주는 **이미 2조원을 달성했다.** 삼성전자의 CAPEX cycle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수혜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은 반도체 클린룸을, 삼성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바이오/하폐수를 전담, 그룹 내 영역이 명확히 분리돼 왔다. 연 2조원대 디스플레이 수주는 내년도 이어질 것이다. 관계사 수주는 1.5년에 소화되는 단납기라 해외수주로 환산 시 2.5배의 매출효과를 내, 3조원의 관계사 수주는 7.5조원의 해외수주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그룹 건설투자는 연 6조원으로 추정돼 삼성물산과 나눠도 향후 삼성엔지니어링은 연 2~3조원의 수주가 가능하다. 지난 2년간 타사들은 주택호황을 유동성 강화의 기회로 누렸으나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에 소외됐다. 이제 이에 버금가는 수익원을 확보한 셈이다.

■ 변화 3) 체질변화

작년 3분기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충당금을 반영하는 대대적인 클린화에 돌입했다. 1분기 미청구공사/매출 비율은 25%로 안정적이다. 진행률 99% 이상 현장의 미청구공사는 손실확률이 높다는 논리는 매우 비합리적이다. 통상 발주처는 최종 PAC(공증서) 전까지 유보금 성격(도급액의 약 5%)으로 매출채권 승인을 홀딩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도급증액을 위한 claim으로 정상채권이 미청구공사로 계정분류되는 경우도 있다(5/23字 '미청구공사 바로 알기'). 올 4월, 업그레이드된 리스크 통제시스템을 런칭했다. 실시간 전 현장의 cost overrun 발생여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며 잠재손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계약방식도 PAC를 다수단계로 분할하는 등 과도한 heavy tail 방식 수금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주전략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 프로젝트 당 2~3조원 규모를 '싹쓸이' 수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타겟하는 수주는 개당 10억달러 미만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프로젝트다. 베트남 롱손 정유(5억달러), UAE 제벨알리 정유(9억달러, 4개사 숏리스트 중 유일한 한국업체) 등이다. 중동은 경쟁이 치열해도 물량이 꾸준하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아직 없지만 장기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점차 재개됨이 긍정적 시그널이다.

인력은 2012년 7,249명에서 현재 5,560명으로 감소했다. 계약인력 포함 시, 8,800명에서 6,900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말에는 계약인력 포함, 6천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연 매출 7조원대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이다. 2012~2013년, 인력은 비대해도 수행역량 낮은 엔지니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경험이 축적된 7~8년차 엔지니어 비중이 커졌다. 향후 매출을 단기에 급속히 늘릴 가능성은 낮다. 연간 6~7조원대의 수주를 유지하되 40%는 관계사 수주로 충당하며 아래 4가지 핵심상품 위주로 극히 선별수주를 하고 있다.

1) 바이오플랜트: 바이오로직스 공사로 국내 유일의 관련 경험을 쌓았다. 최근 한미약품 공사(800억원)도 수주했다. 바이오플랜트는 player가 희소한 유망시장으로 일본 Chiyoda와 JGC의 핵심상품 중 하나다. 2) 미국: 진입장벽이 높지만 가장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다우 플랜트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 경험을 기반 삼아 작년 롯데케미칼+액시올사 합작의 MEG를 수주했다. 시공이 까다로운 미국시장 특성을 감안해 E(설계)와 P(기자재)만 수행하며 C(시공)는 CB&I가 전담한다. 3)유지보수(Revamping): 향후 플랜트 시장은 신규투자인 그린필드보다 업그레이드 위주의 리뱀핑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4) LNG: LNG 액화플랜트는 5개 카르텔멤버가 독과점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작년 '텍사스 LNG'에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LNG액화는 에틸렌크래커(5개사 독과점, 삼성엔지니어링은 Linde와 파트너로 다수 시공)과 유사성이 많다. 그러나 시황 감안 시 본격 진출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시장에 한국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SK건설이 유일하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올해 가이던스와의 괴리 좁히는 중

삼성엔지니어링은 2016년 매출 7조원, 영업이익 2,200억원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우리는 당초 이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차 가이던스와의 괴리가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 2016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58%. 순이익을 69% 상향한다. 1) 현안 프로젝트(매출이익률 0%)의 수주잔고 내 비중은 작년 말 24%에서 현재 18%로, 연말 8.8%로 하락할 전망이다. 주요 현안 프로젝트는 '얀부 발전'과 UAE 'CBDC' 로 진행률은 각 80% 89%(사업보고서 진행률은 시운전 포함으로 상이)이다. 모두 2017년 상반기 완공이나 원가투입의 절정은 지났다. 한편 2013~2015년 이익 훼손의 주요인이던 '샤이바' 가스전은 최종 준공이 임박, 1분기 change order를 수령, 447억원의 영업이익 기여가 있었다.

2) 관계사 매출은 올해 2.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2015년 2조원). 관계사 영업이익률 6~8%로 가정 시, 관계사 공사에서 1,680~2,240억원의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물론 비용 차질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한다. 그러나 작년 대대적인 비용 반영 후,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의 claim 타결 가능성 등이 리스크를 억제할 것이다.

과거의 청산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은 줄고 리스크는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외형은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핵심시장과 상품확보, 강화된 리스크 관리시스템, 엔지니어의 경험 축적 등 펀더멘털은 달라졌다. 이 사항들이 숫자로 본격 확인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립'의견을 유지하나 그간 취했던 극히 부정적이고 보수적 관점보다는 점차 긍정적 포인트에 역점을 둘 시기로 판단한다. **실패도 자산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8,911	162	55	1,487	NM	243	15.9	9.0	0.8	5.9	-
2015A	6,441	(1,454)	(1,305)	(35,301)	NM	(1,370)	NM	NM	NM	(409.0)	-
2016F	6,919	179	120	888	NM	238	12.0	11.5	1.6	34.7	-
2017F	6,656	238	168	856	(3.6)	297	12.5	8.9	1.4	15.4	-
2018F	6,361	278	199	1,016	18.7	336	10.5	8.0	1.3	15.6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김영현(younghkim@truefriend.com) ☎ 02-3276-6186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7(화)	6/8(수)	6/9(목)	6/10(금)	6/13(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1.63	2,027.08	2,024.17	2,017.63	1,979.06
	등락폭		25.79	15.45	-2.91	-6.54	-38.57
	등락종목	상승(상한)	506(3)	411(0)	300(0)	448(0)	156(0)
		하락(하한)	307(0)	395(0)	525(0)	364(0)	675(0)
	ADR		99.60	95.46	91.80	92.08	87.54
	이격도	10 일	101.90	102.22	101.75	101.11	99.13
		20 일	102.14	102.81	102.55	102.11	100.13
	투자심리		6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81	498	600	404	439
	거래대금	(십억 원)	5,541	5,846	7,955	4,777	4,541
코스닥	코스닥지수		704.77	703.99	705.08	706.81	695.61
	등락폭		3.34	-0.78	1.09	1.73	-11.2
	등락종목	상승(상한)	581(0)	436(4)	414(2)	638(1)	252(2)
		하락(하한)	485(0)	625(0)	641(0)	431(0)	841(0)
	ADR		103.73	103.57	103.68	103.87	102.18
	이격도	10 일	101.34	100.99	100.92	100.90	99.24
		20 일	101.37	101.23	101.38	101.62	100.07
	투자심리		80	80	80	90	80
	거래량	(백만 주)	774	826	1163	990	813
	거래대금	(십억원)	3,408	3,978	4,718	3,796	3,447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88.5	1,068.8	825.4	303.2	47.7	189.7	51.5	6.4	226.9	71.5
	매도	2,414.8	1,216.8	899.2	196.8	76.2	267.2	99.6	14.6	244.8	23.4
	순매수	**173.7**	**-148.0**	**-73.8**	**106.3**	**-28.6**	**-77.5**	**-48.1**	**-8.2**	**-17.8**	**48.1**
	6 월 누계	**-1,183.2**	**1,305.6**	**-114.1**	**950.6**	**-176.2**	**-585.1**	**-54.9**	**-129.5**	**-119.0**	**-8.3**
	16 년 누계	-3,389.0	4,159.5	-1,533.9	-149.7	2,162.4	-2,093.2	-900.3	-668.9	116.0	763.3
코스닥	매수	3,215.2	147.3	80.4	21.0	5.9	24.4	6.2	1.7	21.2	22.0
	매도	3,135.3	195.0	105.4	31.2	6.7	39.3	10.3	1.3	16.7	29.1
	순매수	**79.8**	**-47.7**	**-25.0**	**-10.2**	**-0.8**	**-14.9**	**-4.1**	**0.4**	**4.5**	**-7.1**
	6 월 누계	**308.5**	**-19.4**	**-148.9**	**11.0**	**-28.2**	**-83.4**	**-49.6**	**1.1**	**0.1**	**-140.2**
	16 년 누계	2,816.4	195.6	-2,049.6	-231.9	-125.0	-650.4	-349.6	-104.2	-588.7	-962.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은행	4,614	전기전자	-18,112
의약품	2,230	화학	-16,348
전기가스	1,695	미분류	-9,642
SK하이닉스	9,010	삼성전자	-30,112
삼성에스디에스	5,390	NAVER	-9,326
기업은행	4,791	기아차	-6,380
일양약품	4,691	현대홈쇼핑	-4,493
CJ	4,469	광동제약	-3,988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8,549	전기전자	-12,983
미분류	5,899	전기가스	-5,022
의약품	4,011	보험업	-4,750
KBSTAR 200	6,997	삼성전자	-17,855
현대모비스	4,065	기아차	-6,071
롯데쇼핑	4,060	한국전력	-4,540
효성	3,970	SK	-3,470
한미사이언스	3,427	현대글로비스	-3,445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미분류	7,003	통신업	-3,379
음식료	863	유통업	-1,412
철강금속	852	의약품	-1,156
KODEX 레버리지	11,302	KODEX 인버스	-2,935
KODEX 200	1,169	KT	-2,126
롯데케미칼	1,093	KCC	-1,260
CJ제일제당	972	SK텔레콤	-1,253
POSCO	693	KT&G	-1,247

보험			
순매수		순매도	
미분류	3,971	기타금융업	-10,815
음식료	1,862	운수장비	-7,280
서비스업	1,725	화학	-3,254
KODEX 배당성장	9,971	TIGER 200	-12,071
NAVER	6,950	맥쿼리인프라	-8,767
ARIRANG 200	3,341	기아차	-4,910
ARIRANG 고배당주	2,978	SK이노베이션	-2,939
SK하이닉스	2,638	삼성전자	-2,38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음식료	5,518	미분류	-38,855
철강금속	4,814	운수장비	-19,282
전기가스	4,538	통신업	-13,453
KODEX 인버스	36,657	KODEX 레버리지	-44,326
SK하이닉스	16,700	삼성전자	-30,700
현대차	9,410	기아차	-22,944
KB금융	9,222	KODEX 200	-18,912
삼성에스디에스	8,038	아모레퍼시픽	-14,235
일양약품	7,695	SK이노베이션	-11,653
롯데케미칼	6,254	맥쿼리인프라	-7,988
삼성전기	6,018	KT&G	-6,378
LG생명과학	5,919	현대홈쇼핑	-6,222
CJ	5,453	한올바이오파마	-5,767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미분류	20,490	서비스업	-23,130
은행	5,780	유통업	-19,969
운수창고	5,309	전기가스	-19,337
KODEX 200	17,738	한국전력	-18,009
삼성SDI	11,707	현대차	-17,309
한화테크윈	9,356	KB금융	-10,704
우리은행	6,534	SK하이닉스	-8,662
현대홈쇼핑	6,004	롯데쇼핑	-8,572
현대글로비스	5,082	일양약품	-7,610
현대엘리베이	4,868	삼성엔지니어링	-7,116
맥쿼리인프라	4,552	삼성생명	-5,959
SK텔레콤	3,809	신한지주	-5,731
기아차	3,805	하이트진로	-5,62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화학	3,377	기계,장비	-3,323
금융	838	의료,정밀기기	-1,918
IT부품	476	운송장비,부품	-1,653
연우	3,174	제이브이엠	-2,520
셀바이오텍	1,188	피에스케이	-1,627
한국토지신탁	837	바이로메드	-1,304
파트론	749	메타바이오메드	-1,28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694	CJ E&M	-1,205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제약	1,962	방송서비스	-1,942
의료,정밀기기	1,842	오락,문화	-953
금융	1,077	화학	-631
한국토지신탁	1,077	CJ E&M	-1,035
카카오	985	솔브레인	-987
오스템임플란트	913	CJ오쇼핑	-822
아스트	780	연우	-739
제이브이엠	654	파라다이스	-642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디지털컨텐츠	568	금속	-765
제약	420	화학	-127
오락,문화	291	컴퓨터서비스	-64
조이시티	581	코센	-777
오스코텍	310	연우	-99
파라다이스	287	솔브레인	-53
동화기업	90	AP시스템	-53
이베스트투자증권	76	민앤지	-45

보험			
순매수		순매도	
금융	967	제약	-1,549
운송장비,부품	679	의료,정밀기기	-601
화학	633	방송서비스	-430
한국토지신탁	967	휴온스글로벌	-584
에이치엘비	720	CJ E&M	-382
네오팜	493	JW신약	-369
한양이엔지	297	삼천당제약	-351
제이브이엠	216	인바디	-33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금융	1,368	방송서비스	-4,694
디지털컨텐츠	1,157	기계,장비	-4,282
화학	913	IT부품	-2,674
한국토지신탁	1,349	CJ E&M	-2,958
SK머티리얼즈	1,140	피에스케이	-1,909
셀바이오텍	988	파라다이스	-1,648
ISC	906	제이브이엠	-1,621
이엔에프테크놀로지	897	메타바이오메드	-1,280
컴투스	812	바이오로그디바이스	-1,264
연우	805	솔브레인	-1,203
네오팜	788	바이로메드	-1,170
KT뮤직	731	케어젠	-1,078
메지온	689	CJ오쇼핑	-947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의료,정밀기기	1,722	제약	-12,177
농업	611	오락,문화	-4,778
연구,개발	519	반도체	-4,400
오스템임플란트	4,630	셀트리온	-4,808
CMG제약	2,016	카카오	-3,737
컴투스	1,830	에스아이티글로벌	-2,503
메디톡스	1,248	차바이오텍	-1,753
레고켐바이오	1,232	세미콘라이트	-1,659
중앙백신	1,090	디오	-1,630
이오테크닉스	1,025	바이넥스	-1,553
바이로메드	956	AP시스템	-1,490
안랩	948	크리스탈	-1,352
네오팜	926	엠젠플러스	-1,06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경동가스	66 일	삼진제약	22 일
TIGER 원유선물(H)	23 일	한솔케미칼	20 일
SK디앤디	21 일	롯데푸드	20 일
TIGER 헬스케어	16 일	한전산업	16 일
한미약품	16 일	메리츠금융지주	15 일
조선선재	15 일	CJ제일제당	14 일
KODEX China H 레버리지(H)	13 일	JB금융지주	13 일
한진중공업	13 일	대덕GDS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양이엔지	27 일	빅솔론	26 일
티비씨	19 일	실리콘웍스	20 일
픽셀플러스	15 일	오스템임플란트	14 일
원익머트리얼즈	13 일	컴투스	12 일
조이시티	12 일	KTH	11 일
예림당	9 일	안트로젠	10 일
유진테크	8 일	뉴트리바이오텍	9 일
제이스텍	7 일	코닉글로리	9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214,548	삼성전자	245,499
한미사이언스	82,384	KODEX 200	156,035
SK하이닉스	71,586	TIGER 200	123,114
POSCO	50,680	이노션	91,499
한미약품	49,508	NAVER	65,491
현대차	46,018	기아차	41,937
BGF리테일	44,256	한국전력	34,752
KB금융	38,079	고려아연	33,31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컴투스	6,985	컴투스	20,542
한국토지신탁	6,179	메디톡스	17,140
유진테크	5,263	오스템임플란트	8,028
레고켐바이오	3,164	이오테크닉스	5,840
아스트	2,799	CMG제약	5,712
팬엔터테인먼트	2,566	레고켐바이오	5,655
큐리언트	2,487	씨젠	3,987
ISC	2,281	휴온스글로벌	3,81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KODEX 인버스	36,657	1,592	38,248
삼성SDI	152	11,707	11,858
삼성전기	6,018	933	6,951
한미사이언스	3,258	1,390	4,649
JW중외제약	452	3,432	3,884
한미약품	2,415	1,046	3,461
호텔신라	510	2,839	3,349
한화케미칼	1,032	1,783	2,816
GS	655	1,514	2,169
엔씨소프트	769	858	1,62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서비스	102	284	386
비금속광업	285	75	360
육상운송	0	142	142
컴투스	812	1,830	2,643
네오팜	788	926	1,714
메디톡스	225	1,248	1,472
레고켐바이오	202	1,232	1,434
연우	805	318	1,123
쎌바이오텍	988	18	1,005
강스템바이오텍	637	285	921
동진쎄미켐	312	436	748
서울반도체	403	340	743
인프라웨어	514	226	74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신영증권	24 일	퍼시스	46 일
AJ렌터카	21 일	풀무원	36 일
서연이화	18 일	유니온	28 일
한화	18 일	휴스틸	26 일
금호산업	17 일	유화증권	22 일
TIGER S&P500인버스선물(H)	16 일	세원정공	19 일
새론오토모티브	16 일	코오롱머티리얼	15 일
조선내화	15 일	에넥스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아진엑스텍	35 일	휴맥스홀딩스	33 일
유니크	24 일	대동기어	33 일
크루셜텍	19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30 일
미스터블루	18 일	NICE평가정보	29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4 일	서연탑메탈	23 일
인베니아	12 일	서원인텍	21 일
코텍	12 일	와이비엠넷	18 일
KCC건설	12 일	신라에스지	1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195,521	한미사이언스	-48,573
삼성전자	-146,137	현대차	-47,996
KODEX 200	-125,362	BGF리테일	-43,290
TIGER 200	-118,542	만도	-25,078
이노션	-97,849	한올바이오파마	-20,425
기아차	-61,017	동양	-17,233
SK텔레콤	-37,868	POSCO	-16,720
LG유플러스	-30,814	효성	-14,76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카카오	-18,020	카카오	-39,274
제이브이엠	-11,359	제이브이엠	-12,205
에코프로	-6,171	셀트리온	-6,757
솔브레인	-5,371	보성파워텍	-6,516
휴온스글로벌	-5,273	디오	-5,816
KH바텍	-4,932	오픈베이스	-3,866
에스에프에이	-4,900	인바디	-3,48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865	CJ E&M	-3,39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9,282	-10,125	-29,408
화학	-9,664	-18,539	-28,203
서비스업	3,451	-23,130	-19,679
KODEX 레버리지	-44,326	-168	-44,495
삼성전자	-30,700	-1,125	-31,825
아모레퍼시픽	-14,235	-1,599	-15,834
삼성생명	-4,215	-5,959	-10,174
롯데쇼핑	-718	-8,572	-9,289
NAVER	-2,532	-3,548	-6,079
신한지주	-133	-5,731	-5,864
현대산업	-1,560	-4,174	-5,734
S-Oil	-1,123	-4,382	-5,504
삼성물산	-2,593	-2,832	-5,42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651	-12,177	-14,828
오락,문화	-2,050	-4,778	-6,828
기계,장비	-4,282	-2,167	-6,449
셀트리온	-624	-4,808	-5,432
CJ E&M	-2,958	-808	-3,766
디오	-838	-1,630	-2,467
세미콘라이트	-659	-1,659	-2,318
피에스케이	-1,909	-179	-2,088
파라다이스	-1,648	-370	-2,017
바이넥스	-249	-1,553	-1,802
차바이오텍	-21	-1,753	-1,774
제이브이엠	-1,621	-130	-1,7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54	-913	-1,66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3	18,918
SK텔레콤	39	8,245
LG유플러스	757	8,036
S-Oil	86	7,270
SK하이닉스	234	6,792
BGF리테일	32	6,697
삼성중공업	516	5,079
KODEX 200	193	4,79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115	10,896
셀트리온	22	2,182
파라다이스	112	1,867
크리스탈	69	1,444
포스코 ICT	175	1,097
중앙백신	21	845
한국토지신탁	225	834
AP시스템	44	81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58	5,565,169
한미약품	1,652	1,134,666
현대중공업	9,708	1,121,270
호텔신라	16,765	1,099,801
NAVER	1,390	1,000,551
KT&G	7,554	959,400
POSCO	3,835	830,274
SK하이닉스	27,064	784,84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215	2,380,286
카카오	12,402	1,176,937
바이로메드	2,053	317,201
로엔	2,990	223,985
메디톡스	394	185,630
파라다이스	10,889	178,040
코미팜	3,718	146,694
이오테크닉스	1,331	130,80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비금속	6,441	운수장비	-6,211
통신업	2,909	기타금융업	-4,907
보험업	1,115	화학	-3,594
동양	6,511	삼성중공업	-3,385
한화투자증권	3,351	BNK금융지주	-2,876
LG유플러스	2,705	두산중공업	-2,770
한온시스템	1,803	하나금융지주	-2,766
한화생명	1,773	금호타이어	-2,239
삼성엔지니어링	1,371	대우조선해양	-1,363
맥쿼리인프라	1,161	NH투자증권	-1,340
메리츠종금증권	984	현대증권	-1,332
한올바이오파마	961	기업은행	-1,323
SH에너지화학	767	우리은행	-1,314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2,036	기계,장비	-355
IT부품	1,665	섬유,의류	-281
전문기술	1,446	운송장비,부품	-231
카카오	1,285	일경산업개발	-416
포스코 ICT	1,275	일신바이오	-390
원익홀딩스	735	지엔코	-333
아이이	700	비아트론	-289
실리콘웍스	503	유진기업	-274
위노바	459	유진테크	-269
파워로직스	407	아스트	-267
유비케어	396	신화인터텍	-256
아미노로직스	326	파라다이스	-197
3S	304	현진소재	-1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7(화)	6/8(수)	6/9(목)	6/10(금)	6/13(월)
외국인	4,159.5	1,305.6	807.5	260.4	309.5	413.2	-27.6	-148.0
기관계	-1,533.9	-114.1	-70.6	147.9	-38.4	-195.8	89.5	-73.8
(투신)	-2,093.2	-585.1	-554.1	-3.6	-130.5	-172.5	-170.1	-77.5
(연기금)	352.0	-98.9	-154.9	29.9	-74.1	-72.1	-22.1	-16.4
(은행)	-668.9	-129.5	-141.3	3.0	-16.6	-111.6	-8.0	-8.2
(보험)	2,162.4	-176.2	-318.5	-28.7	-21.3	-114.8	-125.2	-28.6
개인	-3,389.0	-1,183.2	-918.7	-435.8	-314.5	-228.1	-114.1	173.7
기타	763.3	-8.3	181.8	27.5	43.4	10.6	52.1	48.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6/3(금)	6/7(화)	6/8(수)	6/9(목)	6/10(금)
KOSPI	2,011.3	1,915.6	1,961.3	1,985.8	2,011.6	2,027.1	2,024.2	2,017.6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533.3	21,744.0	22,611.1	23,671.5	24,366.8
(증감액)	-3,802.5	1,630.7	6,853.1	-196.3	-789.3	867.1	1,060.4	695.3
(회전율)	29.9	34.0	28.8	41.6	41.2	43.4	53.5	35.2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279.4	-887.0	792.9	637.9	383.5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237.7	3,253.5	3,252.7	3,252.8	3,244.3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873.5	3,893.1	3,910.2	3,931.8	3,960.6
미수금	92.9	117.6	151.0	127.0	136.0	120.2	110.6	115.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2(목)	6/3(금)	6/7(화)	6/8(수)	6/9(목)
전체주식형	78,515	-2,789	-711	-263	16	-144	-180	-173
(ex.ETF)		-1,854	-425	-59	-60	-54	-74	-168
국내주식형	60,236	-3,086	-663	-259	35	-129	-175	-172
(ex.ETF)		-2,150	-376	-54	-40	-39	-68	-167
해외주식형	18,279	297	-48	-5	-20	-15	-5	-1
(ex.ETF)		297	-48	-5	-20	-15	-5	-1
주식혼합형	8,300	4	-34	0	2	-6	-2	-2
채권혼합형	30,344	-405	-31	16	-50	7	2	-10
채권형	100,525	13,409	708	19	356	45	234	-117
MMF	114,030	20,043	-1,863	904	2,655	607	-1,077	-4,48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7(화)	6/8(수)	6/9(목)	6/10(금)	6/13(월)
한국	3,596	1,116	700	225	268	356	-24	-126
대만	4,678	1,819	870	467	403	-	-	-
인도	2,776	592	202	81	81	-	-	-
인도네시아	490	171	82	48	-4	31	7	-
태국	789	274	77	51	38	-9	-2	-
남아공	-2,371	1,117	743	230	200	167	146	-
필리핀	454	126	91	53	42	4	-8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5년말	6/7(화)	6/8(수)	6/9(목)	6/10(금)	6/13(월)
회사채 (AA-)	2.11	1.85	1.83	1.80	1.79	1.78
회사채 (BBB-)	8.06	7.89	7.87	7.83	7.82	7.82
국고채 (3년)	1.66	1.40	1.37	1.34	1.32	1.31
국고채 (5년)	1.81	1.49	1.46	1.42	1.41	1.39
국고채 (10년)	2.08	1.71	1.69	1.66	1.65	1.62
미 국채 (10년)	2.27	1.71	1.70	1.68	1.64	-
일 국채 (10년)	0.27	0.11	0.10	0.12	0.14	-
원/달러	1,172.50	1,162.70	1,156.60	1,156.00	1,165.50	1,173.40
원/100엔	972.63	1,083.40	1,082.55	1,085.85	1,088.65	1,096.02
엔/달러	120.55	107.32	106.84	106.46	107.06	107.06
달러/유로	1.09	1.13	1.14	1.13	1.13	1.13
DDR3 1Gb (1333MHz)	1.00	0.86	0.86	0.86	0.86	-
DDR3 2Gb (1333MHz)	1.13	0.90	0.90	0.90	0.90	-
NAND Flash 16Gb (MLC)	1.46	1.36	1.37	1.37	1.37	-
CRB 지수	176.81	192.42	195.82	195.09	193.72	-
LME 지수	2,217.9	2,239.4	2,270.7	2,246.0	2,245.4	-
BDI	478	606	610	611	610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50.36	51.23	50.56	49.07	-
금 (달러/온스)	1,060.00	1,241.00	1,263.00	1,263.90	1,275.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서태종(seotaejong@truefriend.com) ☎ 02-3276-6184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Rosengren 연준이사 연설	유럽〉 1분기 GDP QoQ (0.6%, 0.5%, 0.5%)	中〉 5월 수출 YoY (-4.1%, -4.0%, -1.8%) 5월 수입 YoY (-0.4%, -6.8%, -10.9%) 日〉 1분기 GDP (0.5%, 0.5%, 0.4%)	韓〉 한국은행 금통위 (1.25%, 1.50%, 1.50%) 선물옵션 만기일 中〉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0%, 2.2%, 2.3%)	
13	14	15	16	17
中〉 5월 광공업생산 YoY (6.0%, 6.0%, 6.0%) 5월 소매판매 YoY (10.0%, 10.1%, 10.1%)	中〉 5월 신규대출(~15일, 십억위안) (n/a, 750.0, 555.6) 5월 M2 통화공급 YoY(~15일) (n/a, 12.5%, 12.8%) 美〉 5월 소매판매 (n/a, 0.4%, 0.8%) 日〉 4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3%) 유럽〉 4월 산업생산 MoM (n/a, 0.5%, -0.8%)	韓〉 5월 실업률 (n/a, 3.8%, 3.7%) 美〉 5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0.7%)	美〉 **FOMC 기준금리 결정** **(n/a, 0.25%, 0.25%)**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1%, 1.1%) 日〉 **BOJ 통화정책회의** **(n/a, n/a, -0.10%)** 유럽〉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1%, -0.1%)	美〉 5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50, 1,172) 5월 건축허가(천건) (n/a, 1,145, 1,116)
20	21	22	23	24
韓〉 5월 생산자물가지수 日〉 5월 수출 YoY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기존주택매매	美〉 5월 신규주택매매 유럽〉 5월 마킷 유로존 제조업 PMI 독일〉 5월 마킷 독일 제조업 PMI	美〉 6월 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 Kaplan 연준이사 연설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